

대법원이 동성결혼 인정하면 이로인한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7월 18일 대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 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고 하였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동성(남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반자로 사는 사람을, 여성간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공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여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남성 동성에 커플)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이 평등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

재 우리나라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상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등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실(過審)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을 무시하면 온당한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이 법률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오심(誤審)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한 권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 되며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는 혼란과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오히려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맞는 판단이 아닌가!

실제적 하자가 없는 것을 '평등 원칙'을 들여여서 선명한 헌법에 덧칠을 해 버리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는 것을 모르는가?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 만 헌법의 규정과 혼인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차별 논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 되며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

교단 제73차 총회 제3회 임원회

동성애자 부부 피부양자 인정 규탄

코로나 감염병 입원환자 확산에 대한 경계심 가져야



교단 총회(총회장 김영준 목사) 제73차 총회 제3회 임원회가 지난 7월 23일(화) 오전 11시 흥제은혜교회(담임 이인호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김기진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왕하 6:8-16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능력'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는 능력,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이 능력이 되는 영력, 살리는 역사가 있는 능력, 원수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조차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장동근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김기진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사항으로는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소천 보고 등을 처리했다.



이어 제73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가 전국 장맛비로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접정연기 되었음과 2024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연합수련회가 7월 28일(주일)부터 30일(화)까지 대림밸리교회 평창수양관에서 개최됨과 겸기동우회모임이 8월 13일(화) 강원도 강릉 영동제일교회(담임 김용덕 목사) 인근 해변가 모래사장과 소나무 숲 일대에서 열리게 됨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최근 코로나 감염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는 상황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종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으며 적령기 결혼이 조급씩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저 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왜곡으로 영혼을 수령으로 빼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핵무장 압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제주 큐어프라이드 행사진행에 반대

거룩한 방파제 동성애반대집회·서귀포 자구리공원에서 개최… '제주도 오염' 안 돼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는 지난 7월 13일(토) 오후 2시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자구리 공원에 동성애자들이 모여 '큐어프라이드'라는 행사 진행에 반대하여 '거룩한 방파제'라는 동성애행사 반대집회(행사 준비위원장 김견수 목사/제주한마음교회)를 바로 옆 잔디밭에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제주도민연대가 협력하여 열었다.

그런데 행사 바로 전날인 7월 12일(금) 밤 자정을 넘긴 시간에 동성애행사 반대 쪽에서 설치한 현수막

들을 누군가가 칼로 난도질해 놓아서 경찰에서 CCTV 확인을 통해 용의자를 체포하였고 즉시 수사를 실시하고 배후주적을 위해 스마트폰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자 행사당일 큐어 측 행사가 완전히 위축되었고, 또 계속해서 비가 쏟아져 계획했던 큐어행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끝냈다.

경찰 추산 큐어행사 총 150명, 동성애행사 반대집회 총 80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구호를 외치고 동성애집회 반대 퍼레이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 | |
|-------------------------|---------------------|
|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 ■ 농협 301-0153-7296-01 | ■ 문의 02)2675-5181~3 |



'애통하는 사람'



조용목 목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애통이란 전전한 애통, 경건한 애통, 신앙적 성격의 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애통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큰 슬픔에 처하게 됨으로 인하여 내면적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슬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되는 가를 넷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한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чет째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에 관련하여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들이 일생을 그런 주장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종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자신은 죄인이며,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란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복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이웃과 동포와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겨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 멸망 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도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주시는 청천과 상금이라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족과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직면하여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애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과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경건하고 숭고한 애통이 늘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를 항상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온혜와진리교회)

타슈켄트 기독신학교 건립예배 및 기공식

2024년 5월 19일 (주일) 오후 2시



기독대학총장포럼 하기해외연수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기독신학교 방문

대학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박사(성결대 명예총장)는 지난 7월 9~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대학총장포럼 주관으로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2024년 대학총장하기연수회'를 개최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기독대학의 방향'의 주제로 심도깊게 기독대학들의 발전 방향과 대안들을 모색하고 개진하며 우즈베키스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타슈켄트 기독신학교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드까지 진행하자 위압감을 느껴 동성에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제주도 학부모 연대를 비롯해서 서귀포시 송산동 마을회와 상인회 주민들까지 나서서 청정 제주도를 오염시키자 말라고 강력히 외침으로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고 진보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이 동성애행사 반대집회 축 현수막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에 초점을 맞춰 뉴스를 계속 내보냄으로 퀴어행사 주최 측이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성애자 피부양자 허용 판결 규탄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는 별개 의견이 바람직한 방향



(사)한국기독교총연
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한기총)는 지난 7월 19일(금) 동성 동
반자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에 대해 '동성애
자의 피부양자 허용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
서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대법원이 18일 동성애자의 건
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
탄하며,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
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애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 동성 동

반자가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혼' 이라는 것도 헌법에 의하면
남녀의 결합이 전제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는
다면, 헌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
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억지
판결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동성애는 남
녀의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대법원이 논리도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판결을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성명서는 계속해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
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
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
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법원

은 헌법에도 없으며, 입법부에서 국민적 합
의도 거치지 않은 동성혼을 선제적으로 인정
하고 있는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
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
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
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의 의견이 사법부
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대법
원 판결을 받은 이외의 동성 동반자에 대해
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
는 것은 금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예외의 판
단을 받은 것일 뿐,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
가 확대된 것은 아니며,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규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경찰자문위, 한국지회 설립

한국 총재 겸 이사 양창부, 지회장 이향란 선임

한미경찰자문위원회 한국지회 설립 감사
예배가 지난 7월 19일(금) 오전 11시 서울 종
로구 대학로 소재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드렸졌다.

이날 예배는 윤승권 목사 사회로 임홍식
목사의 대표기도, 임근원 목사의 특송, 국제
마약경찰대 서울캠퍼스 총재 양창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양 목사는 히 1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언

제나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어야 한다"며, "우
리 한국지회가 미야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더 창대해질 것이다. 우리는 네가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풋아 담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일구어 나가자"
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 이향란 지회장의
경과보고, 이우희 자매의 특송, 이태근 목사
의 현금기도 후 임희영 목사가 '나리와 민족
을 위하여', 신현만 목사가 '지회가 시대 가
운데 파수꾼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란 제목
으로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신동진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쳤으
며, 이후 참석자들은 한국지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미경찰자문위원회 한국지회는 지난
2024년 7월 10일부로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이사장에 마영애, 미국 회장에 정영열, 한국
총재에 양창부, 지회장에 이향란이 맡아 이
끌고 있다. 한국 이사로는 양창부·이향란·
양지경·이우희·신현만·이사가 한국지회로부터 추
천을 받았다.

2023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발표

지난 한 해 동안 2,420만 부 이상 성경 반포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세
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2천 4백 2십만 부 이상
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으며, 신약·단편 성
서·어린이를 위한 성서를 포함하면 총 1억 5
천 2백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되었다."고 밝
혔다.

이어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과 필요에 따라
인쇄 성경과 디지털 성경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동 중에는 앱이나 오디오 성경을
이용하고, 집에서는 인쇄 성경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거나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는 여전히 인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고 했다.

인도성서공회는 성경 2백 6십만 부를 반포
하여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 신약성서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3백 3십만 부를
반포, 단편성서는 2백 2십만 부를 반포하여 전
년보다 90%를 초과하는 증가세 보였다.

아이티 학생들의 삶을 밝혀준 아이티성서



공회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곳 이상의 학교에 소책자와 성경을 보급하
여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며, "어린이들에게 성서를 보급하는 프로
젝트를 통하여 아이티성서공회는 위기의 시
대 가운데 신앙이 갖는 힘에 주목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걸프성서공회는 "지난해 쿠웨이트에
있는 아주민 교회들을 위한 훈련 세미나를 개
최하여 암하리아, 타갈로그어, 텔루구어와 신
힐리어로 된 성경을 반포했다."며, "걸프성서
공회의 사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중요
한 변화를 주고 있으며, 쿠웨이트 교회들이 효
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섭길 수 있도록 돋고
있다."고 밝혔다.

우, '프랭크버거'에서도 쪽양이 전달한 후
원금 중 1억 원을 후원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쪽양과 후원 기업이 전달한 후원금은 월드비
전을 통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사업과 국내
결식아동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월드비전은 유튜버 쪽양을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 밥
피어스아너클럽은 월드비전 창립자인 밥피어
스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후원금
이 1억 원 이상인 후원자 중 다양한 지구촌 문
제에 공감하고, 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앞장
서는 후원자를 회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먹방' 쪽양, 후원금 2억 원 전달

월드비전, 쪽양 '밥피어스아너클럽' 회원으로 위촉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
환)이 먹방 유튜버 쪽양으로부터 1,000만 구
독자 달성을 기념으로 후원금 2억 원을 전달받
았다고 10일 밝혔다.

월드비전과 쪽양은 지난 7월 9일(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후원
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쪽양과 월
드비전 임직원, 후원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이뤄졌다.

이날 쪽양은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를 방문해 사랑의 도시락 봉사 활동에도 참여
했다. 쪽양은 국내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포장하고 배달하며 선한 영향
력을 전했다.

아울러 쪽양 채널을 후원하는 기업인 '더
미식' '명륜진사갈비', '샘표', '엄마네한

독립자금모금 채복만 선생 후손에 보금자리

가수 션 등 기부마라톤 '815런' 캠페인 조성 기금으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
와 가수 션은 지난 7월 25일(목) 전라북도 정
읍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새 보금자리
현장을 가졌다.

독립군부 및 광복단으로 활동한 애국지
사 채복만 선생의 후손 가정에 현장된 이번 보
금자리는 매년 광복절에 개최하는 기부마라
톤 '815런'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지어졌다.

채복만 선생은 1909년 전북 일대에서 유
장열 의병장 휘하에 활동한 독립유공자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군자금을 모으
는데 헌신했던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금지를 이어가기
위해 소방의용대 활동을 하다 갑작스러운 사
고로 1급 지체장애를 판정받은 채복만 선생
후손은 "현관 계단 단차가 높아 휠체어 생활
을 하기 불편했는데, 계단 없이 올라갈 수 있

는 경사로가 생겨 이동하기 너무 편해졌다"
며 감사를 전했다. 815런 캠페인 홍보대사

가수 션은 "사고로 장애를 가진 후손 가정들
이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없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집을
지어준다"며 "815러너들 참여 덕분에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편안한 여
생을 보내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14호 집은 많은 스타들이 집짓
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지난 6월
배우 정혜영·윤세아, 전 축구 국가대표 이
영표, 전 레슬링 국가대표 정지현, 전 여자배
구 국가대표 한송이 등이 가수 션과 함께 건
축봉사에 참여했다.

한국보수교단협, 창립 44주년기념 및 이전예배

박영호 대표회장, "생명을 지키는 그루터기 되자"

(사)한국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이하 한기협)는 지난 7월 15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소재 연약교회(담임 박영호 목사)에서 협회
인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기협

사회로 공동회장 원영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NC선교회 대표 임장혁 목사의 특
별찬양, 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의 름 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남은 자신'이란 제목
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호 목사는 "그루터기에 다시 쌍이 나
오듯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보
수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의 손
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자"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 둘로스 종회장의 봉헌기도
후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이드보라 목사(구속
사 종회장)가 '나리와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조사무엘 목사(에나우힘 대표)가 '선교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김태호 목사(합동보수총
회장)가 '한기협과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표
성순 목사(합동보수 감사)가 '세계 전쟁 종식
과 평화를 위하여', 임정철 목사(한기협 협
동총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
하여'란 제목으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 오순절 종회장 정명구 목사, 예장영
신 종회장 선한규 목사의 축사, 공동회장 이창
희 목사의 색소폰 연주, 창립 44주년 케이크 커
팅, 사무총장 박영호 목사의 광고 후 전성결대
교수 류천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전국 8개 교회에서 생명나눔 약속

생명나눔 사역에 많은 참여와 관심 당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이하 본부)는 지난 6월, 전국 8개 교회
에서 628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환자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소재
한 은평교회(박지현 담임목사)는 총 3부에
걸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생명나눔예
배를 드린 은평교회는 이날 다시 한 번 장기
기증의 고귀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현 담임목사는 "세상을 떠나면 육신
은 면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
실 때 비로소 온전한 영과 육으로 회복된다."라
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천

으로서 두려움 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함께하자"라고 권면했다. 이에 416명의 성
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626명의 성도가 장기부전 환자를 섭기는
생명나눔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6월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이성훈 담임목사)에서
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20여 년 전 신부
전 환자인 동생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
증하며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성훈 담임목사
는 "올해 교회 슬로건이 '살리는 교회, 살아
내는 성도'이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자"라고 권면했다. 이에 생명
나눔 사역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한 성도 98
명이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201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린 하늘비전교회
는 총 287명의 성도가 생명나눔 운동에 마음
을 더하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7월 4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지역예선 '서울장애인합창예술
제'를 시작으로 광주(9월 6일), 충남(9월 11
일), 인천(9월 20일), 전북(10월 17일), 경남
(10월 12일), 서울(10월 19일) 등에서 지역 예선
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예선 미개최 지역은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8월 9일(금)까지
이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합창단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백
령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합창대
회 본선에 진출하여 대통령상 대상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지역 예선 참가와 동영상 심사 접수 문의
는 국장협 홈페이지(www.nanum.tv), 전국
장애인합창대회 홈페이지(www.ncf1203.
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제32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합창대회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지역예선 및 동영상심사 접수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
장 최공열)가 주최하고 국제장애인문화교류
강원도협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특
별자리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수출
입은행, 사랑의열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
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BS한
국방송, YTN, CTS기독교TV, 복지TV가 후원
하는 제32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
인합창대회 예선 미개최 지역의 동영상 심사

접수가 시작됐다.

7월 4일(목)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지역예선 '서울장애인합창예술
제'를 시작으로 광주(9월 6일), 충남(9월 11
일), 인천(9월 20일), 전북(10월 17일), 경남
(10월 12일), 서울(1

생명의 말씀



김 바 을 목사

• 경기지방회 전임 회장
• 진리교회

오늘 본문 마 15:32-39에는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4천명을 떠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마 14:15-21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떠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유사한 사건이 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한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한 번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마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베낀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성경 저자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14장 초반부와 15장 후반부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연달아 기록한 것은 메시지 전달의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키아즘(교차 대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키아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키아즘으로 되어 있고 칠병이어와 바리새인의 누룩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키아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키아즘 구조로 보면 본문 이해가 쉽습니다.

1. 오병이어의 기적(마 14:13-21)
2. 물위를 걸으신 기적 :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마 14:22-33),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심(마 14:34-36)

3.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어 경배함,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마 15:1-20)
4. 귀신들린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치심. 네 믿음이 크도다(15:21-28),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심(마 15:29-31)

5. 칠병이어의 기적(마 15:32-39)
위의 단락나누기를 보면 1과 5가 대조되고, 2와 4가 대조되고, 그 가운데에 3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물위를 걸으신 기적과 귀신을 내쫓으신 기적 등에 둘러쌓인 이야기의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계명과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말하려는 바는 믿음과 종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온갖 교훈과 계명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이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믿음

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 전리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이 막바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고, 소경과 병어리와 앉은뱅이들이 고침을 받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요?”라며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어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각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 믿는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말해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 때 가능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로인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종교화된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에서 벗어나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살롬^^

동정

조영길 대표 성수협 유튜브 개설



성수협(모든 성경의 신적 권리 수호운동 협회)이 유튜브(YOUTUBE) 채널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개시했다. 차바 대표이자 성수협 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는 지난 7월 24일(수) 유튜브 채널 ‘모든 성경의 신적 권리 수호협회’를 오픈했다. 성수협은 취지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 무오한 신적 권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한동대 차세대 기업가 양성 워크숍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가 유네스코 유티원 사업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차세대 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자카르타 국제대학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2024 NGET Startup Workshop in Indonesia’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면예배 금지 소송 선고유예



대면예배 집합 금지를 시행 기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당했던 서울에스파교회 남궁현우 담임목사가 지난 7월 17일(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교회와 방역당국의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로 향후 재판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모은다. 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는 “그동안 교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자유평화 주장 미안마 삼손 목사 석방



미안마의 군사정부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침례교 성직자가 국제사회에 석방 요구에 따라 복역 1년에 만에 풀려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카친족 응호단체의 발표를 인용해, 카친침례협회의 전 회장인 흐칼람 삼손 목사(Hkalam Samson)가 16개월간 복역한 후 이달 초 풀려났다고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일선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데

지난 달 25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제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반대한 조회연 교육감이 5월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하여 제의를 서울시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폐지를 결정하였다. 당연한 것이다. 말이 학생인권조례이지, 그동안 여려 가지 부작용과 반대에 부딪쳐 온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서력이 악화되면서 이제야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서울시 의장이 발의하므로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폐지 통과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충남학생인권 폐지 후 두 번째 결과이다. 당연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당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그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아당연함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731호)이 발의되었다. 여기에는 5당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창민(사회민주당) 박운정, 정종생, 김선민(조국혁신당) 윤혜인(기본소득당) 전종덕(진보당) 서미화, 문정복,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발의한 이유가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보다 국회에서 만들려는 소위 학생인권 법은 다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은 교육의 최상위 기관인 교육부에도 책임과 의무를 주려고 한다. 제6조에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여

보면,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중에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이 들어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그대로이다.

어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말하며,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담을 수가 있는가? 학교가 사상과 정치적 견해로 과거 정부처럼 학생들 사이에 편파기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인가?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결국은 동성애를 응호하고 이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안은 교육의 최상위 기관인 교육부에도 책임과 의무를 주려고 한다. 제6조에 보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

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25조에서는 교육부에 ‘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도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라고 한다. 거기에는 30조에 보면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여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학생인권옹호관에게는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데, 제34조 2항에 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시·도 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 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공무원 등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가? 제7조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보장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그친다. 그런데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나? 즉 교육 당국은 그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바른 인권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국민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를 바라는 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까지 강제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는 멈춰야 하며, 국민들은 이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들이 폐지되는 미단에 그보다 강화된 법을 만들려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범위로 일방적 인 권리만 주게 된다면 상대적인 교사, 학교, 학부모 등은 압박과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들려는 의원들에게 묻겠다. ‘교사인권법’도 발의할 의향이 있는가?

제79주년 8.15 국가기도회 (사)예장총연 특별세미나

주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일시 2024년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장소 기독교관 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TEL. 02-763-9746

대회장	설교	강사	축사	축도	제1부 사회	제2부 사회	대표기도	성경봉독	특별기도
이 광 용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예 영 수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오 관 석 목사 前 침례신학대학 이사장	김 원 석 목사 (사)예장총연 고문	김 기 형 목사 예장총회 총회장	김 화 인 목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장	김 상 돈 장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장	원 동 인 목사 (사)예장총연 범인아사	서 영 진 목사 (사)예장총연 범인아사	박 대 규 목사 예장립동보수총회 총회장
권 혁 은 목사 (사)한부연 범인아사	이 종 태 목사 예장선교총회 총회장	홍 혁 기 목사 예장고신연합 총회장	차 요 한 목사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오 선 미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하 석 수 목사 (사)한부연 범인아사	김 순 종 목사 (사)예장총연 범인아사	모 성 춘 목사 예장보수총회 총회장	김 영 복 목사 (사)예장총연 범인아사	이 강 수 목사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특별기도	헌금기도	제2부 기도	기도회 결의문	연 주	오찬기도
권 혁 은 목사 (사)한부연 범인아사	이 종 태 목사 예장선교총회 총회장	홍 혁 기 목사 예장고신연합 총회장	차 요 한 목사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오 선 미 목사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하 석 수 목사 (사)한부연 범인아사	김 순 종 목사 (사)예장총연 범인아사	모 성 춘 목사 예장보수총회 총회장	김 영 복 목사 (사)예장총연 범인아사	이 강 수 목사 예장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70개 교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 2층 / TEL: 02-706-2970~1, FAX: 02-706-2990

대회 조직

고문	지도위원	행동총부
김원식 목사	김기월 예영수	지광식
정태현 김기현	김정수 김성수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	

월례회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 위해 기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7월 8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에 위치한 순복음주천미교회(담임 윤혜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찰름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안병섭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대표기도, 진영훈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민 14: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인생의 여정(세월의 길목에 서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황연선 목사(순복음



있는교회)의 현금기도, 김태주 목사의 광고,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주찬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업무보고

를 받은 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주찬미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복음을 위해 수고의 흔적을 가진 사역자가 되길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효신 목사)는 지난 7월 16일(화) 순복음창성교회(담임 박서현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서성영 목사(복된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은숙 목사(선한순복음교회)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지방회 회부장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갈 6:17, 누 23:26-28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흔히 흔적은 지나온 뒤에 남은 상처나 자국을 말하는데, 헬라 원본에는 스티그마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뜻은 죄수들에게 불도장으로 낙인을 찍어 죄인임을 표시했던 것이다."라며 "고대 노예나 군인들에게도 이 낙인을 찍어서 그들이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가를 표시했는데, 바늘 자신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강도위협과 굶주림 등 자



신이 겪은 많은 상처들을 보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낙인을 찍힌 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다(고후11:23-28)"고 전했다.

이어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고, 어떤 분은 심한 모욕감을 받은 것들이 실제로 남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니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창성교회)의 인도로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친 후, 창성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중식과 차와 디과로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목양신문은

종교대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사명 감당 다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7월 15일(월) 오전 11시 평강순복음교회(임상유병일 목사)에서 지방회 및 7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육요섭 목사(소생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조재호 목사(청대교회)의 대표기도, 유병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담후 4:5~8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앞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우리 인생이 모세의 고백처럼 70~80년 속히 지나간 후,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목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문의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좋은 세상적인 조건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다해 달려왔는데, 우리도 주를 아는 자식으로 충만하여 복음위해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2부 회의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

로 각종 보고사항을 받고, 지난 유럽종교개혁자 성지순례 결산보고 후, 지방회 환우들을 위해 특별기도를 드린 후 회의를 마쳤다.

이어 평강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눈 후에 14일 오후 소천한 부강순복음교회 김정수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해 지방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 1 폐놀성물질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 2) 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혈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5) 탁시풀린 : 탁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6) 칼슘 : 흙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떨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용난 연구논문 발표됨)
- 7) 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떨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짧아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 11시00분 : 예배 및 기도회
- 13시00분 : 점심식사
- 14시30분 : 맨발 걷기
- 16시30분 : 차와 음료 나누기
- 17시30분 : 식사 후 다시 목회 현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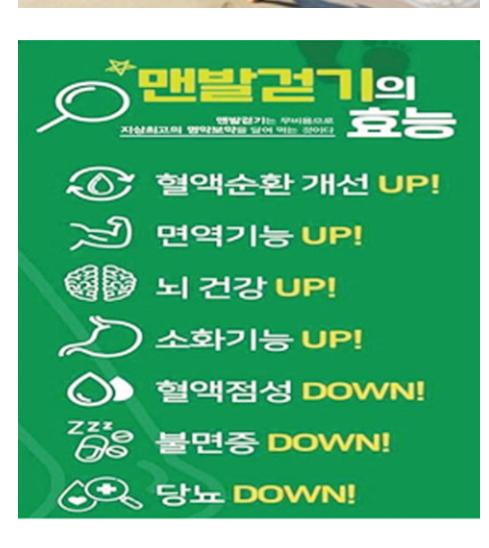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영동제일교회 담임 : 김용덕 목사
강원도 강릉시 송정길 5-12

TEL: 033-652-1881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2024 다음세대 위한 교단연합수련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 주제로 개최

7월 28일(주일)-30일(화) 대림벧엘 평창수양관에서 열려
총회장 김영준 목사 외 김견수, 김진원 목사 등 강사로



김영준 목사
예하성 총회장
칼릴리코소망교회 담임



조선남 목사
예하성 교육국장
대림벧엘교회 담임

30일(화)까지 2박 3일간 대림벧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담임 조선남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초등부 5, 6학년, 중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들이 모여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로써 함께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지방회 산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기가 기득한 가운데 2박 3일간 열린 이번 캠프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라는 주제아래 교



부흥사회장 김견수 목사

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예배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방회 소속 교회별로 2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님과 되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개회예배 말씀을 비롯 교단 부흥사회장 김견수 목사와 인천지방회 전임회장 김진원 목사의 성령충



만 집회 인도, 선택특강 1,2 찬양콘서트, 간증 콘서트 및 시장 등 다양한 순서와 함께 이번 캠프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성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가 기득한 수련회가 되었다.

특히 선택특강을 통해 맞춤형 강의를 찾아 알고 깨닫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솔로 청년들의 연예특강, AI시대 살아남기, 예배와 예배인도자, 비전찾기, 복음이란, 관계만들기, 교회영성 활동과 편집, 공부방법론 등 다양한 주제강의를 통해 밝은 웃음을 되찾는 친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회를 준비한 대회본부장 조선남 목사는 교단내 중소형 교회 및 소규모 청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

합하여 개최하는 2024년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연합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목회자들의 관

심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10대 청소년 마약 중독 급증’... ‘중독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제 강의



“예방 교육을 받은 아이는 마약을 접해도 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마약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마약 중독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마약 중독 예방 교육입니다” -김지연 약사

“차세대를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차세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진규 목사

인천지방회는 지난 회기동안 한국교회의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비의 대처를 위해 2021년 6월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5호 3면)를 가졌으며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기장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김지연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

을 교회에서 ‘거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승만’ 이란 주제로 특강시간을 연이어 갖고 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해 바로보고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7월 16일에는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를 초청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교회의 할 일’을 주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점검해 보기도 했다.(목양신문 1229호 5면)

인천지방회는 지난 회기동안 한국교회의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교회에 침투해 오는 이단사이비의 대처를 위해 2021년 6월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를 강사로 세미나(목양신문 1175호 3면)를 가졌으며 11월에는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건강기장기본법개정안 등 기존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갖 사회 악법들이 밀려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김지연 약사(영남신학대학교 특임교수)를 강사로 세미나

(목양신문 1186호 3면)를 갖고 한국교회에 침투해오는 이단사이비와 전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진규 목사는 지난 7월 26일(금) 저녁 8시 한국기독교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약사)를 확진순복음교회에 강사로 초청하여 ‘중독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강사 김지연 한국기독교보건협회 대표는 “마약중독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마약중독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와 일상생활 현장에서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을 철저히 깨달아 마약중독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지연 대표는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을 알리고, 특히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이 급증하는 실태의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72%가 증가하고 특히 2023년의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가 증가한 27,611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2023년에는 10대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 대비 207.1%가 급증해

서 10대들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년도 대비 세 배

에 달하는 숫자다. 2~30대 마약사범도 15,051명으로 2022년보다 42.7%가 늘었으며, 전체 인구비율이 24.6%인데 비해 마약사범 비중은 54.5%으로 집계되어 2~30대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에 8,910명으로 2022년 대비 79.4% 증가했다. 2021년 비율 23.6%로 소폭 감소한 이후 2년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32.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마약사범은 인구비율 대비 범죄율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나 수도권이 인구율 50.6% 대비 범죄율이 53.4%로 28%가 높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대비 범죄율이 2~3% 낮게 나타났다.

김지연 대표는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10대들의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약 위주의 단순 마약사범에서 밀매, 밀수, 연락처 등 다변화하고 있으며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이를 때 일수록 국민 모두와 정부 관계자들이 마약 중독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마약 중독 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방 교육을 받은 아이는 마약을 접해도 신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마약에 쉽게 빠지게 된다. 마약 중독이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와 일상생활 현장에서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을 철저히 깨달아 마약중독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선 마약예방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마약에 대해 배우고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바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기독교 양육자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토대로 한 선한 동기부여를 지속해 도파민(인간에게 살아갈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의 배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완성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했다.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했는데 마약 중독 자가 되었네요”라고 한탄하는 중독의 세대가 아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행동했는데 그리스도가 존귀해지셨어요”라고 말하는 세대, 기꺼이 도파민의 행로를 주님께로 배신해 성장하는 세대로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은 중독과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된다.

“요제벳이 어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띠울 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차세대의 믿음에 역청을 바르자. 그 역청을 바르는 작업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이기에 세월을 아껴 부지런히 차세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면서 “하나님과 강한 응집력과 애착 경험을 토대로 중독 없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모든 믿는 자들의 도파민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나라였다고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기부여와 성경에 기반을 둔 훈계를 자녀들에게 배울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이 도파민 행보를 신본주의적으로 배신하고 그 선한 파이프라인을 따라 보상회로가 가능되도록 기도하고 차세대를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충만한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 참된 아기페 사랑의 실천 가운데 보상회로가 작동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히 믿음의 역청을 발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제벳이 어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띠울 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차세대의 믿음에 역청을 바르자. 그 역청을 바르는 작업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이기에 세월을 아껴 부지런히 차세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면서 “하나님과 강한 응집력과 애착 경험을 토대로 중독 없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모든 믿는 자들의 도파민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나라였다고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연합, 동성애자 건보자격 인정 판결 규탄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



한국교회연합(대표 회장 송태섭 목사/이하 한교연)이 지난 7월 18 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커플의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한 것에 대해 "동성혼 합법화의 물꼬를 더운 대법원의 동성애자 건보 자격 인정 판결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애자 반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판결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부부로 인정한 법률을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스스로 무너뜨린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판단임을 지적하며 규탄하는 바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및 현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 대법원이 동성애자 간의 결합을 사실로 마음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 동반자 관계는 '사회적 약자' 도 아닐뿐더러 법률상 사실은 관계인 부부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틀을 넘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계층을 말한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 소수자는 이미 약자가 아니다. 국회에서 진보진영에 압력을 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문화법' 등 젠더 이념을 심으로 훨씬 하는 이들을 어찌 약자라 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들은 음란한 성문화를 사회에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도심 한가운데서 '위어문화축제'라는 이름의 거대한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거대한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 부르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애필로 젠더 이념에 매몰된 동성애 옹호 추종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아니다. 하나님 나씩 성취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록 발의로 그쳤지만,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미중으로 쓰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큰 과오를 저질렀다. 첫째는 성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정서적 흐름에 훨씬 더 법률적 판단에 오류를 범한 것이고, 둘째는 남녀 부부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민법의 틀을 깨면서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제도를 허물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부부에게만 주고 동성애 동반자에게 주지 않는 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랑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한 권리'로 침해하는 것이다.

는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차별과 구별의 뜻조차 혼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오류에서 오는 혼란과 법의 체계의 붕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무책임은 전함에서 같은 의견을 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공히 있다. 우리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까지 이런 의견에 동의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런 기울어진 판단으로 어찌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3인의 대법원 후보 중 한 명인 이숙연 대법관 후보가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차별금지법과 성전환과 동성애를 옹호해 온 인물이라 점이다. 이런 기울어진 신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동성혼 합법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 점에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은 표하는 바다.

대법관은 국가의 사법체계를 바르게 지킴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지닌 최고의 신분이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 젠더 이념에 기울어 소수의 권익을 위한 역사별로 국민을 희생으로 삼을 게 뻔한 법관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다.

국회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법질서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대법원 후보자의 문제점을 낱낱이 가려내려 내야 할 것이다. 현법 정신과 국민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회복해 주기를 기대한다.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 반대

감리회 남부연회, 최초 '동성애 반대 성명서' 발표

"성경을 왜곡하고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감독 김동현 목사)가 7월 26일(금) 최초로 '동성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남부연회의 성명 발표는 소속 목회자 1명이 지난 7월 6일(토) 대전 키어축제에서 축복식에 참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날 남부연회 앞에는 성명 발표를 환영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지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이선규 목사에 따르면, 이날 성명은 김동현 감독 외 실행부위원회, 감리사협의회, 남·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등도 동참했다.

성명서에서는 키어축제 축복식 참여 목회자에 대해 "성경을 왜곡하고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성

토했다.

이들은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구약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기증한 일입니다'라고 했고 신약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우리는 '동성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동성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전도 할 것"이라며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대속하셨다. '동성애자'는 구원의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회개해야 할 죄"라고 했다.

끝으로 "우리는 위에서 결의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유일하고 거룩한 진리임을 고백하며, 감리회 교리와 장정대로 남부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성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크루C



이승만 대통령의 국빈 방미 및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논평

한미동맹의 바탕인 신앙동맹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70년 전인 1954년 7월 28일 국민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날인 27일 한미 간 최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8월 13일까지 약 2주 동안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양국 공동성명 발표, 뉴욕 퍼레이드, 유엔본부 방문, 시카고 방문, 트루먼 전 대통령 만남, 로스엔젤레스 및 샌프란시스코 방문, 하와이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살롱 나비는 역사적인 이 방문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로 기념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오늘날 북중러의 밀착하는 냉전적 위협에 직면해서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70년 한미동맹의 바탕에는 한미 간 뿌리 깊은 '신앙동맹'이 있었다.

역사 속 모든 동맹이 그러했듯이 동맹을 맺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제정치사에서 방위조약의 수명이 평균 9년 반에 불과하다는 연구가 이를 잘 드러낸다. 1954년 정식 발효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지난 70년 동안 군�建 히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정학과 국제 정치에 놀라운 혜안을 가졌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과 북한 정권의 끊임 없는 위협 등이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70년 전보다 그 이전의 70여 년 동안 두 나라가 공유한 기독교적 사상과 정신적 바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1884년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이 땅에 뿌리내린 복음과 신앙이다. 작년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도 미상학원 학생들에게 '19세기 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전해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그리했듯이, 그 자유

와 민주주의의 기초에는 다른 아름고 정신과 가치관이 건국 이전부터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두 나라의 동맹 또한 그러한 정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맺어졌다. 한경직 목사는 건국을 앞두고 한 다음의 설교에서 나라가 세워지기 전 교회가 먼저 세워진 미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서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먼저 교회가 서고, 그 후에 나라가 가나안 복지에 섰습니다. ... 청교도들이 북미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 말에 기독교를 한국에 보낸 것은 장자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습니다. ...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을 한 후에 헌법과 모든 정치를 민주주의로 한 것은 그들이 이미 각자 교회에서 그러한 정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금일 대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정치 훈련을 받은 이는 기독교 신자밖에 없습니다."

2.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날의 미중 충돌을 예견했다.

1954년 7월 26일 워싱턴에서 큰 환영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린 이승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과 약수를 하고 한국전을 지원한 리지웨이, 벤플리트 장군과 끝나운 포옹을 나눈 뒤 비행장에 준비된 마이크 앞에서 미리 준비했던 원고를 치우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즉흥 연설을 했다. 50년 전 '나라 없는 인간'으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와 가망 없어 보이는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시절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포문을 연 이승만은, 1950년 북한의 공산침략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탄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당시 상원의장으로 바로 뒤에서 앉아 연설

을 들었던 리처드 닉슨 부통령은 지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승만의 경고를 귀 담아 듣는 대신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쳤고, 결국 닉슨이 스스로 우려했듯이 오늘날 중국은 자신을 경제대국으로 키워준 미국과 국제사회의 밸不舒服을 물어뜯고 있다. 닉슨은 사망하기 얼마 전인 1994년 그를 취재한 기자에게 "내가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낸 것 같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3. 한미동맹의 기본목표인 북한동포 해방과 중국 자유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동포를 해방시켜야 할 대한민국의 기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재천명했다.

"당신분간 공산압제 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해야 할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수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54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양국 국비준을 통해 정식 발효되기 몇 개월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국민의 기본 목표가 중공의 압제 하에 놓인 중국 대륙과 인민들을 구출하는 것에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목표의 달성을 도울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선언한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가 권고하는 정책은 중국을 구출하는 결단을 빨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정부와 위대한 힘의 원천인 미국 국민에게 호소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미국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세계 도처의 국민들을 지원하자는 말입니다. 미국인

들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공산주의 불길을 진화하겠습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일, 자신이 독립교회 시절 다녔던 파운드리 감리교회 (Foundry Methodist Church)에서 한미 양국이 가진 공동의 사명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한국이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에서] 100만 중공군을 몰아내려 한다면 원자폭탄 보다 무서운 수소폭탄이 순식간에 세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겁냅니다. 그렇습니다. 짐작한 3차 세계대전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수소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무언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손을 잡아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만 저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편에 계신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계신지"를 물었던 링컨 대통령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공산세력에 굴복하는 것은 신앙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죽음보다도 악한 것임을 재천명했다. 그것은 30여 년 후 '공산세력의 유화정책은 평화가 아니라 노예화'라고 선포하며 소련 공산권을 무너뜨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미리 엿보는 것과 같은 강한 신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빈 방미 후 3개월이 지난 11월 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아직 미안의 중대한 과업이 있음을 양국 국민 모두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놀라운 혜안과 안목으로 한미 양국에 설정한 북한동포 해방과 중국 자유화이다.

4. 한미동맹이 북한에 독재정권들의 신생전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가치동맹으로 발전시킨다.

한미동맹이 신앙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치동맹으로 우리는 이를 앞으로 더욱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신앙의 공동의 가치가 잘 보전되도록 대한민국 교회는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실현해 나가도록 협력해야 하겠다.

그와 함께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맺어나가며 중국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신생전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잘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나토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계적인 모든 동맹세력들과 협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국제평화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해야할 것이다.

5. 한국교회는 가치동맹의 원천인 신앙동맹을 지키기 위해 미국교회와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지난 70주년 변함없이 발전해온 바탕에는 한국기독교인과 미국기독교인들 사이의 신앙동맹이 있었다. 오늘날 한국기독교 선교와 부흥에는 미국 선교사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의 일인체제, 푸틴의 장기 일인체제, 김정은의 3대 세습 핵개발모임주의에 대항하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신앙적 교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가치동맹을 새롭게해야 한다.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중국교회가 박해를 받고 북한교회가 지하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연대하여 이들이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치동맹을 새롭게하고 국제인권 기구를 통하여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 자유체제의 중요자가 되기 위해 순교적 정신으로 나서야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미국교회와 신앙적 대안을 강화해야 한다.

2024년 7월 2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한기총, 전북 익산서 수해복구 활동

재해재난구호위원회와 대표회장 등 임원들 참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는 지난 7월 26일(금) 수해피해를 겪은 전라북도 익산시 응포면에서 복구활동을 함께했다.

한기총 재해재난구호위원회(위원장 이강우 장로)와 (사)911 수색구조단 및 정서영 대표회장 등 임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도와 파손시설물 철거와 가전제품 수리, 비닐하우스 세간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서영 대표회장은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기총이 돕기를 원한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지역 교회들이 함께 하기를 독려하며, 아직도 폭우가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자립준비청년 인식개선

최인아책방서 자립준비청년 ‘아름답다’ 에세이 출판기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최인아책방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 에세이 ‘아름답다’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 마쳤다.

‘아름답다’는 박태양 작가를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4인이 저자로 참여한 에세이집이다. 앞서 기아대책의 자립준비청년 인식개선 캠페인 ‘마이리얼캠페인’에 참여한 저자들이 책 출간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 실제 출판과 북토크까지 이어졌다. 마이리얼캠페인은 만 18세가 지나 양육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캠페인을 기획, 진행하면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돋는 기아대책 캠페인이다.

책에서 저자들은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한 청년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며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담았다.

이번 행사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북토크 질의응답, 사진촬영, 사인회 순으로 진행됐다. ‘아름답다’의 저자이자 당사자인 쏘양 박태양 작가와 마린보이 김용민 작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준비 과정, 본인이 겪은 어려움, 성장기 에피소드를 직접 들려주

며 현장에 있는 독자들과 울림을 나눴다. 사회는 2008년부터 꾸준히 기아대책 후원자로 활동해 오고 있는 최희 아나운서가 맡았다. 북토크를 진행하는 중간 중간 중요한 구절을 선명하게 낭독하면서 ‘모두가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저자들의 공통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남 기아대책 회장을 비롯해 브라더스키피 김성민 대표, 책 디자인부터 출간까지 재능기부로 참여한 템복출판사 김선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기아대책 최창남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열렬히 희망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확인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획’의 힘으로 스스로를 세상에 우뚝 세우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기아대책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실질적 자립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기획과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아대책은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온전한 자립을 위하여 마음건강 지원(MOM CARE)과 성장&환경 지원(LIFE CARE), 꿈&자립 지원(DREAM CARE) 세 영역에서 성장주기별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자나 깨나 영접기도

어둠에 가려진 진실의 빛이여 지는 노을 앞산 물들일 때
황혼길 나그네 시름 쉬어 넘는
저 구름 뒤에 천란한 눈물이 되었다.

아, 태평의 세월이여 불의와 불법이 해돋이가 되었던가.
일그러진 영웅들이여 푸른 하늘 드높은 창공을 바라보라.
헛된 욕망은 부질없는 꿈을 잠재우고
뜬 구름은 하루살이 모래성을 쌓았도다.

너 탐욕이여, 오만의 옷을 입는가.
너 악이여, 네 얼굴을 분칠하는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슬프다 인생이여, 하루를 살아도 천년으로 살라.

기억하자, 천년을 산다한들 예수있는 하루에 비견하라.
앞산 봉우리 우뚝 선 고목이여
청야한 녹음단장 순전한 무욕의 표상이라.

아 내 영혼의 고향, 신령한 믿음의 지평선 넘어.
맑고 밝은 아름다운 주의 지성소 있어
오늘 나 여기 거하며 주께 수종 들리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 보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시편 37:28)
여호와께로 돌아오는자는 복이 있도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예비된 영혼이 있기에 물불 안 가리고
복음으로 영접기도에 목숨 건다.
어떤 행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영접기도를 통하여 훈련 되어지도록 외친다.

오늘도 전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영접기도를
들고 전주주연방교회 이에스더 목사,
전주꿈의교회 조에스더 목사 교회를 향해서 달린다.
크신 은총이 함께 할 것을 믿는다.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수 교수

장기기증, 대학생 3,832명 생명나눔 약속

2024년 상반기 대학교 생명나눔 캠페인

(재)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올해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33개의 대학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친 결과, 3,832명의 대학생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생명나눔 운동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2023년 20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만7422명으로 당해 전체 등록자의 21%를 차지해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서도 20대 등록자의 비중이 33%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 본부는 생명나눔 문화의 주역으로 떠오른 20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대학생 장기기증 인식 개선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에도 3월 12일 부산에 위치한 동명대학교

를 시작으로 대학교 장기기증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어 3월 19일,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올해 상반기 캠페인 참여 대학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매년 장기기증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올해 15번째 캠페인을 전개해 382명의 재학생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 4월, 경기도에 위치한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와 동두천캠퍼스에서도 장기기증 캠페인이 진행돼 222명의 학생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 신한대학교 캠페인 현장에는 실제 인체조직을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한 재학생이 동기들과 함께 흥보부스를 찾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훈훈한 광경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남대학교, 경북

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군장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승학캠퍼스), 동의과학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비전대학교, 서강대학교, 수성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고등학교, 안동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조선대학교, 청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항공대학교, 호산대학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에 참여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생명나눔의 가치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쁘다.”라며 “생명나눔을 향한 청년들의 관심이 우리나라가 장기기증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월드뷰티핸즈, 고독생 프로젝트 실천

어르신 상담과 밥사랑잔치도 함께 가져

소셜서비스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애스 더 신한대 교수)와 인문학연구기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소장 최에스더 교수)는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함께 7월 12일(금) 엘드리노인대학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고독사제로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인 뷰티서비스 및 어르신 상담과 밥사랑잔치를 가졌다. 특별히 월드뷰티핸즈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는 뷰티 프로전문가들과 고독사제방상담과 함께, 시 창작과 낭송 시간을 갖고 위로와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5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서류 접수: ① 일시: 2024.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 서류 심사: ① 일시: 2024. 9. 5(목) 오후 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4. 9. 30(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 목사고시료: ① 납부일: 2024. 8. 23(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목사고시: ① 일시: 2025. 2. 3(월)~4(화) 오전 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202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은 1995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겹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영준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무 목사 오세준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경진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2018년 8월 15일은 광복(光復) 78주년이며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 70주년이 된다. 2천만 동포가 그렇게 바라던 광복과 건국 및 정부수립이 이뤄졌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번영과 발전이 이어져 오고 있다. 돌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아래, 광복을 위하여 1919년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해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며, 정신이 죽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국을 동원하여 일제를 폐망시키고 마침내 우리는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일제의 폐망과 우리 민족의 광복(해방)은 참으로 감격과 눈물의 역사였다. 이 날을 위하여 우리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일제와 싸웠다. 만세를 외치고 독립군을 조직하여 싸웠고, 미개하여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으니 배워야 한다는 각오로 지식인들은 앞장서 계몽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1921년 노령자유시참변(소련 영토인 연해주 자유시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3,600명이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한 일) 이후 우리 힘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무망하게 되었다. 일제는 만주에 탱크와 전투기까지 갖춘 최정예군대 관동군 사령부를 두고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켜왔기 때문이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열차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열차 이쪽입니다.

예수라고 쓴 열차에 오르시면 됩니다.

인생의 플랫폼에서 그 소리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드륵... 드륵... 삶의 무거운 짐들을 실으며

열차 안으로 오릅니다. 저기에 내 번호가 있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제대로 열차를 탔으니 이제 안심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열차 안이 채워집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열차에 오른 이들

번호를 확인하고 이제 됐다.. 안심합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는 열차입니다.

빈부극천 차별 없는 열차입니다.

희노애락 표정들로 가득 찬 열차입니다.

아담아~ 부른 그 음성이 내게 들립니다.



“그렇지? 알고 있구나..”

내 뜻을 전하는 게 너의 의무니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 맡긴 주님

내 등을 토닥토닥... 용기 주며 지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묻듯 내게 물으십니다.

지팡이를 내민 모세처럼

은사로 주신 것을 조심스레 내보입니다.

요 21:15~17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말이 아니라
전도와 양육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날 구원하신 이유를 이 아침 분명히 말씀하신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2024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을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증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인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사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영문 모를 일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처럼 답답한 일은 없다. 그것이 국가적인 일 일 때는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두 차례 열었다. 증인으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39명을 채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30만 명을 넘었다는 이유다. 국민동의청원을 근거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에는 없었나?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6만 명이 탄핵 청원을 했지만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제인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데 상식 밖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런 상식 밖의 일을 예상하고 있다. 탄핵이란 우리가 알듯이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해 공직 수행이 불가할 때 내리는 극단적 조치다. 만일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게 상식중의 상식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든 사유는 청원 처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수사, 재판 중인 사안이거나 일방적인 의혹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전쟁 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동물농장에서도 이런 영터리 사유를 들이대지는 않는다.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 자리 수 지능도 이런 일은 감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급한 선동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잘 알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양극화와 국민 분열이 심한 나라라는 것은 이미 정评이 나 있다. 이런 나라에서 어느 대통령이 집권하든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 어렵지 않게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 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고 묻자 정청래 의원은 당시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탄핵 이란 엄중한 문제를 놓고 법사위원회가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강성 개 땀들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개 땀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이 개 땀들보다 훨씬 많다. 무개로 따진다면 한 줌도 안 되는 개 땀들만 의식하고 정치를 난장판으로 몰고 가는 그들이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무리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 땀들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밤의한 탄핵안이 총 13건이다. 심지어는 취임도 하지 않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탄핵이 주머니속의 공기 돌처럼 장난감이 되고 말았다. 세상 전지에 이런 국회도 있었나. 분노가 일고 있다면 정상이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덤덤하거나 아무렇지도 않다면 비정상이다.

탄핵을 장난감처럼 휘두른다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세상 이치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성경의 면치 않는 두 가지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이고 ‘회개하면 산다’이다. 무슨 일이든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후일을 무시하고 이 순간 맘대로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재판이 무슨 소용이며 최후의 심판이 왜 필요하겠는가?

‘카더라’ 수준의 탄핵 사유를 가지고 탄핵 몰이를 하고 있는 정당을 보면서 갖는 생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쌍방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가 대표적이다. 박상용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빌라 공동물손상죄를 범했다고 검사 탄핵 사유를 민주당은 적시했다.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박상용 검사 고소를 하자 이성윤 의원은 자신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말빨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다. 맹자는 말하기를 ‘수치를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카더라’ 수준의 허위를 가지고 탄핵한다고? 역사 아래로 이렇게 저급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국회는 없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밀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눅 6:37)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신입생)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기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약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증본(2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기증관계증명서(증명서)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출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http://gd.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4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http://gd.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